



◇그림에도 조예가 깊은 초의선사가 그린 '달마도'. 지리산 칠불암에 소장돼 있다.

달마도 100작품 '책 한권'에

시공사 '그림으로 만나는 달마'

선종의 초조 달마. 우락부락한 얼굴이지만 달마는 그 모습 자체가 선을 대표하며 깨달음의 징표이기도 하다. 옛날부터 선승들은 구도의 과정에서 달마를 즐겨 그렸다. 따라서 직관의 세계를 묵선으로 활달 간결하게 표현한 선화의 대표적인 그림이 달마도이기도 하다.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기법으로 그린 달마도 1백개를 볼 수 있는 <그림으로 만나는 달마>가 시공사(대표 전재국)에서 나왔다. 100가지 모습 100가지 깨달음이란 부제가 붙어있는 <그림으로 만나는 달마>는 조선 초기 이상화가 그린 달마도부터 사명대사가 그린 달마, 달마도중 가장 유명한 조선 중기 김명국, 단원 김홍도, 초의선, 이당 김은호 등과 경복 화명 만봉 석정 일장 수안 스님 등 최근에 그려진 달마도까지 모두 100점의 달마도를 선별해 작가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 또한 달마라는 인물이 출현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얽힌 설화, 달마도를 찾아다니기까지의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 달마 정신이 달마도와 함께 면면히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책을 묶은 김나미씨는 "선사들이 달마를 즐겨 그리는 이유는 달마가 되고자 한 원력 때문이므로 우리 스스로도 달마를 찾아 구도여행을 떠나는데 이 책이 일익을 담당했으면 한다"고 말한다.

요즘 달마도가 이상한 부처같이 쓰이거나 아무나 달마도를 그려 보급하고 있는 세태에서 <그림으로 만나는 달마>는 진정한 수행력에서 나온 달마도야말로 깊은 감동을 준다는 사실을 새삼 깨우치게 한다.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 불교소설 한승원 '꿈' - 백금남 '천년의 반지' 출간

사바세계에서 해탈 꿈꾼다



◇한승원씨

불교적 색채가 짙은 작품들을 발표해 온 두 명의 중견작가가 최근 발표한 장편소설 <꿈>과 <천년의 반지>는 각기 뚜렷한 주제로 독자를 찾는다. 하나는 어지러운 세태의 답답함에서 벗어나 이상세계를 향한 갈구요, 다른 하나는 번뇌와 인과응보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전한다. 두 소설은 모두 고통 가득한 사바세계에서의 해탈을 꿈꾸며 참된 삶의 이상향을 제시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의 작가 한승원씨의 <꿈>(전2권, 문이당 펴냄)은 욕심에서 벗어나 참된 삶을 사는 이상세계, 즉 정토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300여년전 김만중이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구운몽>을 썼다면, 한씨는 "거품같이 가벼워진 삶의 답답한 고리를 푸는 화두로서 이 소설을 썼다"고 말한다.

소설 <꿈>은 <구운몽>과 같이 <금강경>의 공사상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하지만 줄거리 일부와 거기에 설정된 인물들만 차용했을뿐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재창조했다. 도량에서 불도를 닦던 열 아홉살의 성진은 여덟 명의 선녀와 희롱한 죄로 함께 인간 세상에 태어난다. 시대는 중국 당나라. 과거에 장원급제한 뒤 승승장구한 양소유는 온갖 권력과 부, 여덟 여인과 함께 살지만 나이가 들어 벼슬을 그만둔 후 점차 인생의 허무를 느끼고 불교에 귀의하기로 마음먹는다. 그 무렵 사위들이 역적모의를 한 혐의로 집안 식구 모두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소유는 자신의 욕심이 너무 지나쳤고

인생은 참으로 무상하다고 느끼며 이 현실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정신차리라는 소리에 놀라 일어난 성진은 그 동안의 일이 모두 꿈이었음을 알고 스승이 꿈을 통해 진리를 깨우쳐준 것임을 깨닫는다.

인간의 근원적 번뇌를 다룬 백금남씨의 <천년의 반지>(전2권, 창해 펴냄)는 당사자들도 모르게 하게된 근친혼으로 인한 갈등과 혼란을 불교적 해법으로 승화시킨 작품이다.

이 소설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 남녀가 각자 집안으로부터 물려받은 반지가 같은 모양새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시작된다. 그들은 이제 갓 결혼을 한 30대 부부로 남편 리영은 변호사, 아내 수인은 정신과 의사로서 성공을 거둔 인물이다. 수인은 리영이 자신에게 준 반지와 한국의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반지를 한쌍으로 끼고 시댁을 방문하게 되는데, 시부모들은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된다. 이것을 이상히 여긴 리영과 수인은 원래는 한쌍이었을 반지가 한 여인을 둘러싸고 두 남자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사랑하면서 살인을 저질러 원수시간이 된 두 가문의 역사에서 비롯됐음을 알게 된다. 결국 등각이라는 스님이 수인에게는 외할아버지이자 리영의 할아버지임을 밝혀주고, 두 사람은 스님을 만나게 된다. 스님은 이제 자신이 던져 놓은 악연과 악연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스스로 몸을 살라 소신공양함으로써 두 가문을 사랑과 화해의 길로 이끈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백금남씨

불심시심 (153)

황금 백옥은 내 분수가 아니다

寥寂禪樓石作臺 高요한 산사 누각 돌로 층대 쌓아
(요적선루석작대)
小庭花木向陽開 작은 뜰 꽃나무 양지 보고 피었다
(소정화목향양개)
不逢野客携詩過 시 짓자는 마을 나그네는 지나지 않고
(불봉야객휴시과)
只見山禽引子來 只見山禽引子來
(지견산금인자래)
掌上明珠群象靜 掌上明珠群象靜
(장상명주군상정)
鏡中寒雪二毛衰 鏡中寒雪二毛衰
(경중한설이모쇠)
頂金腰玉非吾分 頂金腰玉非吾分
(정금요옥비오분)
艾葉繁生自剪裁 艾葉繁生自剪裁
(에서삼상자전제)

석옥화상의 운에 차운한 시 중의 하나로 해금대사의 시이다. 역시 시문만 빌려 온 것이 아니라 역사적 서술은 아니다. 그저 산사의 일상적 고타움을 들어 세속적 현란에는 전혀 뜻이 없음을 나타내었다.

층대 위에 높이 솟은 누대 그저 고타우기만 하다. 그 아래 뜰에 피어 있는 꽃들이 햇볕을 향하여 피어 있다. 굳이 햇볕을 향했다 했다. 자연물도 자신의 본성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무엇이든 희구하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 초목은 햇빛을 갈구하듯이,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희구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고타 속에서의 움직임이다. 저 아래 마을의 시인이 시를 지어가지고 와서 담론하는 것이 세속과 통하는 유일한 길일 터인데, 오늘은 그마저도 소식이 없다. 이때 산

새가 새끼를 데리고 나는 것을 본다. 고타의 산중의 한 순간의 상황을 소탈하게 묘사하였다. 하릴 새끼 끼고 나는 새인가. 미물의 애정을 인류의 사랑보다 드높이 그린 걸작이다. 역시 선사시대 시인의 날카로운 시선이다.

모든 자연물들을 확대시키면 우주공간을 메우고도 남지만, 그것을 다시 응축시키면 내 한 몸으로 집결된다. 다시 더 요약하면 손바닥 안에 있다. 이 밝은 구슬의 진리가 바로 이 손바닥에 있다. 그러나 세속의 연륜의 머리털은 거울 속에서 희어 있다. 승과 속의 거리를 진리의 희구가 있어야 한다. 백옥요는 나와 무관하다. 차라리 들알의 무성한 속대풀이나 베어내야겠다. 저 황금관이나 요대를 이 속대로 여겨서.

이종찬 <동국대 명예교수>

이웃돕기 음악회 '情 나누는 연말'

IMF로 그 어느때보다 썰렁한 겨울을 맞고 있는 요즘 실직자 가족 및 소년소녀 가장돕기, 결식아동돕기 등을 위한 따뜻한 음악회가 잇따라 마련되고 있어 한파를 훈훈하게 녹이고 있다.

○...화계사 합창단은 10일 오후 7시부터 서울 노원구청 구민회관에서 창단 8주년 기념 '실직자 가족 및 소년소녀 가장돕기 음악회'를 개최한다. 류동열씨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는 '꽃으로 앉으신 날' '귀의하옵고' '우리로 부처님같이' '보디스바하' 등 찬불가와 가곡, 민요 등 총 17곡이 불려진다.

○...대구경북불교음악인협회(회장 이달철)는 대구 경북 지역 성악가 8명이 참가하는 '찬불가 성악인의 밤'을 13일 오후 6시 대구 대덕문화전당에서 개최한다.

대구 한마음선원 송인합창단 지휘자 김해경씨, 불국사합창단 지휘자 홍순진씨 등 성악가들은 '창산은 나를 보고' '그리운 금강산' 등 찬불가와 가곡 20여곡을 선보인다. 행사에서 나오는 수익금 전액은 결식아동돕기 기금으로 전달된다.

○...역시 결식아동 돕기 위한 제5회 맑고향기로은 음악회가 19일 오후 6시 성북동 길상사 설법전에서 열린다. 김영동씨의 지휘로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이 국악, 가요를 비롯, 국악과 참선의 접목 등



◇지난 96년 12월 열린 불우이웃돕기 제3회 맑고향기로은 음악회 모습.

다양한 내용으로 꾸며진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입장권을 판매하는 대신 정성어린 성금을 접수받아 결식아동들을 위해 사용한다. (02)741-4697 이경숙 기자

문화 단신

동국대 대각전 한국실내건축가협회 '올해의 작품상' 수상

동국대(총장 송석구) 90주년 기념 학술문화관 대각전이 한국실내건축가협회(KOSID)가 선정하는 '올해의 작품상'을 수상했다.

다. 대각전은 전통건축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단청색을 주조로 한 색 배합 등 현대적 감각을 살리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꼽혔다.

박명순씨 풍경화전 13일까지 서울갤러리

불자화가 박명순씨의 '들녘에 스민 계절' 풍경화전이 13일까지 서울갤러리에서 개최된다.

백양사 가는 길목, 메밀꽃 핀 평창, 설악산 초입 등 우리 산하의 들녘을 풍간톤의 색감으로 표현한 이번 풍경화전에서는 명상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40여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최승호시인 우화집 '달마의 침묵'

선사의 세계에 천착해 온 시인 최승호씨가 선사들의 선문답담시 형식으로 쓴 우화집 <달마의 침묵>(열린원 펴냄)을 내놓았다.

선사들의 불립문자 세계를 문학적으로 형상화시킨 이 책은 모두 60여편의 선화(禪話)에 우리 일상사를 빚대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서산대사의 가르침인 '교외별전'을 '궁지'라는 제목이래 진정한 무(無)를 얻지 못하는 자는 질책하는 등 선사들의 가르침마다 자신의 세상은 경책을 드러낸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재 소식

"법주사 팔상전 3칸방향 구조" 수리공사 보고서

법주사 팔상전의 형태가 현존하는 5칸 방향이 아닌 3칸 방향이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68년부터 69년에 걸쳐 이루어진 법주사 팔상전 해체수리 내용과 실측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얻어진 연구성과를 담은 <법주사 팔상전 수리공사보고서>에서 이 사실을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1968년 팔상전 안쪽의 초석이 크기와 형태가 현안쪽을 드러낸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적하고 있다. 또 팔상전 각 층은 길이가 일정한 간격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 간격이 다른 5층할 때나 일본의 5층목탑과 비교할 때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오히려 9층석탑인 미륵사지 동탑과 비슷하다고 밝히고 있다.

"강화 선원사 건립 국가차원 지원" 동대 2차조사 추정

강화 선원사지에 대한 2차 발굴 결과 문지, 회랑지, 배수로, 구들시설, 출수구 등의 유구가 발견되었으며, 막새편, 치미, 명문기와, 고려청자편 등도 다수 출토됐다. 동국대박물관 발굴조사단은 "이번에 발견된 유구 및 유물들로 선원사지가 어떤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계획하에 이루어진 대규모 건물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불로화정 (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2,000명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대구은행 033-07-172508(대구여래한방)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서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서(전화 0443-646-7371) 주지 박 범룡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 「출선식(松仙食)」, 「술효소정액(松醇素精液)」, 「익수영진고」, 「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11-545-5550) 최 청정심 올림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엄청난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술선식(2개월 50만원), 술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7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비은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해영 합장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다. 세시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목

농진청 세계 최초로 다. 세시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목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053) 655-2227
(011) 808-8880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엄청난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술선식(2개월 50만원), 술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7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비은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해영 합장